

< 2022년 교회표어 >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신16:11, 막1:15, 행2:47)**지금, 여기를 강렬하게 살아라!**

- 사도신경
- 찬 송 588장
- 기 도
- 성경본문 [창세기 39:20~23]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 삶 나누기

하나님이 섭리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선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터지거나, 내 삶이 별로 개선되는 일이 없어, 납득되지 않거나, 답답했던 순간이 있었는지요?

서론: 요셉의 인생은 의문투성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은 20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겨우 그 낯설고 황당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살려했지만,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으로 떨어졌다가 젖 먹던 힘을 다해 벼랑을 타고 올라왔는데, 또 다시 밀어 떨어뜨린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엄성을 갖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똑똑한 사람이니, 이청을 거절하면 화를 당할 수 있기에 못이긴 척 받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라고 말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결국 그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주님을 향해 신의를 지키며 살아간 자를 돌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속상하게도 침묵하십니다. 감옥에 가도록 그냥 놔두시면 안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하시고 있는 순간입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로마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사자 밥이 될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의해 순교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침묵하시고 있다면, 주님이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호흡을 더 길게 하고 기대하면서 길을 더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살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섭섭하고 마음이 꼬일 수도 있었습니다. '병 주고 약 주시는구나. 여기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셨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은 감옥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마치 평생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냅니다. 감옥의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배출하고, 운동하고 떠들다가 잠자며 시간을 때우지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걱정하면서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지만, 감옥의 제반 사무를 다 보며, 다른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갔습니다. 곧 그에게는 여기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분명 억울하게 '감옥'으로 내어 던져졌습니다. 어찌 보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 그 어리석은 보디발에 대한 배신감, 보다 근원적으로는 애굽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이들을 생각만 해도 이를 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많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복수를 위해 삶을 불태우거나,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철저히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신기하게도 그 많은 분노를 다 소화해 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대신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강렬하게 집중합니다. 고향이든, 타향이든, 자신이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 하든, 그 있는 자리에서 바로 지금 강렬하게 집중합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인생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자신이 오고 싶어 온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여기 이 순간은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 분을 신뢰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서, 이런 삶의 방식이 나온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바로 거기 그 자리에서 집중하여 강렬하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향에만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곳에도 충만해. 나는 그 분의 현존을 믿으면서 그 분과 동행하면서 바로, 여기서 집중해서 선하게 살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요셉은 과거를 돌아보지도,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과거에 묶입니다. 그의 과거에 누가 있습니까? 형들! 형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뼈가 녹습니다. '그때 그 들판에 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형들에게 잘난 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제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만 더해집니다.

또 요셉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손꼽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오면 좋겠지만, 안 올수도 있습니다. 대신 요셉은 감옥이든, 노예든, 죄수든, 장소와 신분 에 상관없이 하나님 품에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생각이 분주하고 산만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 생각, 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은 온갖 감정들을 일으킵니다. 과거를 후회하다가 갑자기 10년 뒤 미래를 떠올리며 걱정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 마음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휘감아 돕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금 존재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며 어디엔가 묶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강렬하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 충만합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사 43:18)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마 6:34) 대신 지금 여기를 충성스럽게 사십시오!

결론: 하나님은 '현재라는 점'을 통해, 주님의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자신의 존재가 포개어질 때 행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분께 내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삶에 힘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생깁니다. 요셉이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사실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섭리를 믿고 '점'을 찍듯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어느 날 보니, '점'이 '선'이 되고, 인생의 화폭에 담긴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의 알 수 없는 시련! 견힐 때도 되었지만 그대로 있고, 오히려 계속 파도처럼 더 밀려오는 상황들! 하지만 반드시 섭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를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내십시오! 그렇기 찍어낸 오늘의 점이, 내가 예상치 못한 주님의 자리로 이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나눔

1.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억울한 사건들과 이로 인한 수많은 분노를 소화해 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2.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섭리를 붙들며
오늘 바로 지금 여기를 열정적으로 살기위해
내가 지금! 당장! 집중하여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